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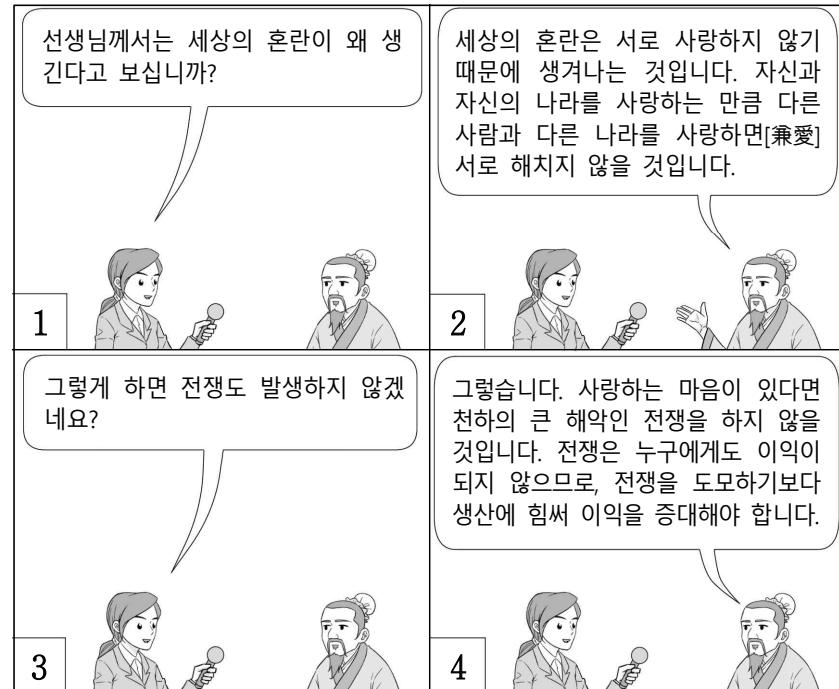
윤리와 사상

1.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정의롭지 못한 편에 서기보다는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하며, 정의롭지 못한 일을 강요받을 때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영혼보다 육체, 부, 명예를 우선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 부, 명예에는 마음을 쓰면서 영혼의 수련에는 무관심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나)	제자: 바람직한 삶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스승: _____ ①

- ①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만을 추구해야 하네.
- ②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찰해야 하네.
- ③ 부정의에 맞서지 말고 자신의 안녕을 지켜야 하네.
- ④ 영혼보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우선적으로 가꾸어야 하네.
- ⑤ 지혜를 수단으로 삼아 세속적으로 성공하려 애써야 하네.

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와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천하에 이익을 가져온다.
- ②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정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전쟁을 도모할 때 백성들의 이익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전쟁은 승리한 나라만 이익을 누리므로 의롭지 않은 것이다.
- ⑤ 생산력 향상이 아닌 국방력 향상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2.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착에 빠진 사람은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인과 법칙, 즉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 삶이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모든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모든 현상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모든 현상에는 고정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만물의 생성과 소멸은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 ② 삶이 괴로움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 ③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관계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깨달음은 자신에 대한 집착을 유지해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모든 현상에 불변의 자아가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5.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 ~ ④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하루에 여섯 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기며 보낼 수 있다.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이므로 빈곤과 사치가 없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다.
 을 : 현명하고 유능한 자가 다스리니 노인은 여생이 편하고, 장년은 일자리가 있으며, 홀로된 자와 병든 자는 부양받는다. 자기만을 위해 일하지 않으므로 음모를 꾸미지 않고 도적이 생기지 않는다. 이를 대동(大同)이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이상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① 정해진 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지 않으며, ②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다고 본다. 을은 이상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③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④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성을 지닌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이상 사회에서는 ⑤ 업적에 따른 분배만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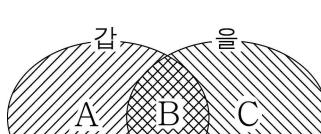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 할 때, A ~ C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아주 작은데, 이 차이를 보통 사람들은 내버리고 군자는 보존한다. 군자는 타고난 인의(仁義)를 충실히 실천할 뿐, 인의를 억지로 실천하지 않는다.</p> <p>을: 성인(聖人)이 보통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은 본성이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뛰어난 것은 인위[僞]이다. 성인은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인위를 일으켜 예의를 만들었다.</p>
(나)	 <div data-bbox="764 1025 1040 115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 기 >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그리스도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의 선물을 재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재물은 신이 창조한 것으로 선하며,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된 것이다. 소명(召命)인 직업에 따라 얻은 재물을 물려받은 재산에 더하는 것도 금지된 적이 없다. 그러나 현세의 쾌락에 빠져 새로운 쾌락을 열망하는 것은 신의 선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신의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낭비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신이 명한 대로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 < 보 기 > ———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거의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는 공적 정의관이 있으며 시민 불복종은 이러한 정의관에 근거한다.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행위의 공공성과 비폭력성, 행위의 법적 결과를 수용하게다는 의지에 의해 풍靡되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불필요한가?
 - ② 시민 불복종의 참여자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민주 체제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부정의하고 부패한 체제의 변혁인가?
 - ⑤ 시민 불복종의 과정에서는 어떠한 수단도 허용될 수 있는가?

9.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존의 경제 이론은 세상을 방임하면 모든 것이 최선이 된다고 봅니다. 이 낙관론은 유효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 문제를 간과합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고용의 확대를 위한 국가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방식과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 없이 개인의 자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① 갑: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 ② 갑: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경제 문제가 있다.
 - ③ 을: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 실현과 무관하다.
 - ④ 을: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대신 국가가 경제를 주도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영 기업의 고용 확대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방위자는 용기의 덕을, 생산자는 절제의 덕을 갖추어 제 할 일을 하는 국가는 정의롭다. 인간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도 국가와 같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영혼의 세 부분이 제 할 일을 할 때 정의롭다. 즉 이성은 지혜를 갖추어 기개와 욕구를 다스리고, 기개는 용기, 욕구는 절제를 갖추어 이성에 복종하고 협력할 때 정의롭다.

- ① 국가의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되는가?
 - ②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야 정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 ③ 기개는 이성의 지시를 거부하는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④ 정의로운 국가는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가 다스리는가?
 - ⑤ 정의로운 인간의 영혼은 세 부분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가?

11.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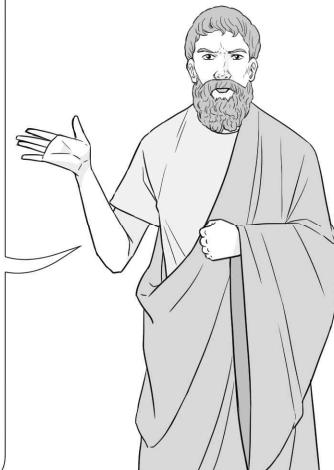
(가)	갑: 나는 개인의 자격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그 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을: 나는 진정한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로부터의 자유’라 부른다. 소극적 자유의 보장 정도는 제도나 타인의 방해 없이 이 길, 저 길을 얼마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20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C{C} A -- 예 --> B{B} B -- 예 --> Gip[갑의 입장] C -- 예 --> Eul[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margin-right: 20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 <보기>
- ㄱ. A: 개인의 삶에 공동체의 규범이 영향을 줄 수 있는가?
 ㄴ. B: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되는가?
 ㄷ. C: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인가?
 ㄹ. C: 공동체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만의 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자연적 욕구들 중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여 얻은 쾌락은 헛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는 쾌락이 필요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는 쾌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① 진정한 행복을 위해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② 진정한 행복은 자연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때 실현된다.
 ③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려면 욕구를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④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제거를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다.
 ⑤ 진정한 행복은 필수적인 욕구의 제거를 통해 완성된다.

13. 다음 사회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에게는 타인에 대한 의무, 즉 혈족의 유대나 시민적 유대를 넘어서는 더욱 확장된 의무가 있다. 또 우리는 보편적 의무뿐 아니라 특수한 삶의 가치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의무와 특수한 삶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를 세계의 동포로 여겨야 한다.

- <보기>
- ㄱ. 인류의 구성원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ㄴ. 타국을 자국 이익을 위한 도구만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ㄷ. 생명, 자유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ㄹ. 세계 시민의 의무를 다하려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계급적 억압, 경제적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폭력이 사라진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

- <보기>
- ㄱ. 문화적 폭력으로 인해 직접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ㄴ. 빈곤과 차별은 인간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폭력이다.
 ㄷ. 진정한 평화는 물리적 폭력이 사라지는 즉시 달성된다.
 ㄹ. 구조적 폭력의 제거를 위해 사용된 직접적 폭력은 정당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기를 이겨 예(禮)로 돌아가면 어질게[仁] 된다. 어질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남에게 달린 것이겠는가?
 ○ 군자가 인(仁)을 버리면 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의 실천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 ①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회복해야 한다.
 ② 사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인에 도달하기 어렵다.
 ③ 군자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생기지 않도록 돋는다.
 ④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⑤ 스승의 가르침만 있으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군자가 된다.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인간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지니고 있어 이성적 자유를 하고 언어를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동물은 영혼을 지니지 않아서 이성의 능력이 없고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기호를 구사할 수 없다.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보기>

- ㄱ. 이성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ㄴ.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래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
- ㄷ. 언어 능력의 차이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 특징이다.
- ㄹ.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은 이성적인 자유 능력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으니 누가 참된 맛을 아는 것인가? 사람은 미인을 좋아하고 동물은 미인을 피하니 누가 참된 미(美)를 아는 것인가? 인의(仁義)의 단서와 시비(是非)의 길이 어지러우니 어찌 그 구별을 알겠는가?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사례>

고등학생 A는 자신과 친구들의 외모를 비교하곤 한다. A는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보기>

- ㄱ. 외모를 가꾸기보다 인의의 규범을 추구하세요.
- ㄴ.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세요.
- ㄷ. 미주의 구별은 관점에 따라 상대적임을 깨달으세요.
- ㄹ. 외모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편견임을 명심하세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국가의 지배하에 두려는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다.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사회 상태로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는 물론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알게 된다.

- ①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저절로 발생한다.
- ② 국가의 수립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연권을 획득한다.
- ③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은 온전히 보장된다.
- ④ 국가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될 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 ⑤ 자연 상태에서 모든 분쟁은 공통의 권력 없이도 해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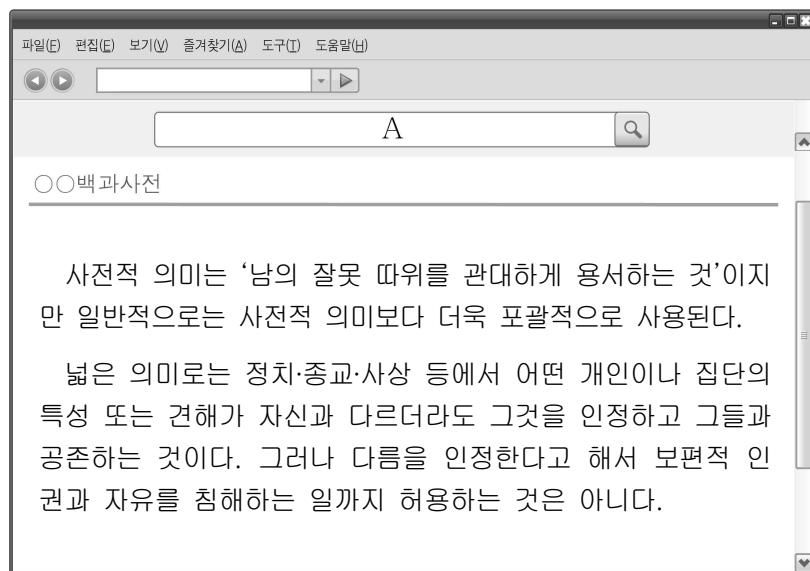
1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세계화를 다루었던 지난 수업 시간에 자네는 해외 원조에 대한 나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했었지?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 즉 정치나 사회 제도가 미비한 사회를 원조할 의무를 지닌다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하지. 그러나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지만 빈곤한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의 의무가 없다네. …(후략).

- ① 원조를 통해 국가 간 부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 ② 부유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만이 원조의 의무를 지닌다.
- ③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 ④ 원조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므로 개인의 자선에 맡겨야 한다.
- ⑤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 그림은 어떤 용어를 검색한 인터넷 화면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정치·종교·사상 등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또는 견해가 자신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을 인정한다고 해서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① 신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 ②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이다.
- ③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 ④ 다양성을 존중하여 어떠한 가치관도 모두 인정하는 태도이다.
- ⑤ 차이를 인정하므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